

“생김새 달라 다툰다구요? 우린 너무 친해 걱정이예요”

⑧ 다문화 교육 선도하는 '화순 천태초등학교'

‘발노래’ 민요 공연 함께하며 모두가 한마음 “서로의 문화 이해하니 마음의 벽 사라졌어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 어놀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일본인 엄마를 둔 화순 천태초교 5년 흥은정양)

“학교에서 한국의 민요를 배웠는데, 형이나 누나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서 행복했어요.”(필리핀인 엄마를 둔 천태초교 1년 흥기민군)

지난 4일 오전 11시께 화순군 도암면 원천리 천태초등학교 운동장. 흰색 의상을 입고 이마에 흰색 띠를 둘러맨 학생 소리꾼 4명이 “거무야~ 거무야~ 왕거무야~ 줄에 동동 왕거무야~”라고 선창하자, 부녀자 복장을 한 39명의 학생들이 소리 높여 따라 불렀다. 이어 학생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고무래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호미로 김을 매는 장면을 선보였다. 이마에는 붉은 띠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모두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이 노래는 화순의 ‘도암 도장리 발노래’라는 민요로, 함께 민요 공연에 참가한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해줬다.

천태초교는 지난 2004년 일본인 어머니를 둔 양승완(13)군이 첫 입학한 이후 다문화 2세 수가 해마다 2~3명씩 늘어났다. 반면, 한국인 일부 사에서 태어난 학생은 하나 둘씩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2000년 76명에서 10년이 지난 올해는 31명으로 ‘반토

막’ 됐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는 다문화 2세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던 다문화 2세들은 이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했고, 학생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천태초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도암 발노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당시 교사들은 학생들간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서로의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열린 마음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도암 발노래 재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상당수 학생들이 민요 공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 전통민요의 가사도 어렵거니와 20여분간 뛰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매일처럼 서로 부대끼며 공연을 하는 동안 흥미를 갖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변했다. 몽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최선종(7·1년)군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어서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했다. 그러나 한달 남짓 민요를 배운 지금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장난을 칠 정도로 가까워졌다.

천태초교는 민요 외에도 전교생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는 물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편견없이 수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년별로 1명씩, 총 6명이 모여 활동하는 ‘하늘·별 6남매 교육활동’, 필리핀, 네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활동’, ‘각 나라의 음식체험’, 국악 등 ‘민속놀이’, 필리핀 산호세 수화영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도전, 걸어서 고장 탐방’을 통해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다문화 2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활동도 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은 이같은 프로그램에 힘입어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어졌다. 어머니가 이주여성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아이들도 없어졌다.

교실 분위기도 2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쉬는 시간이면 다 함께 모여 즐겁게 ‘이야기 꽃’을 피우고, 친구들과 함께 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가 어린 동생들이 잘 지내는 지 살펴봐기도 한다.

정유진(12·6년)양은 가장 친한 친구로 일본인 어머니를 둔 홍정화(12·6년)양을 꼽는다. “우린 언제나 함께 해요. 정화로부터 일본말이나 문화를 배우면서 더욱 친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형남호(12·6년)군도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문화 2세들과 싸우고 한탄하는데 우리는 너무 친해서 문제”라며 “학교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다 보니 차별이나 편견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천태초교 정규제(60) 교장은 “다른 학교들과는 달리 다문화 자녀들로 인한 문제점이 전혀 없다”며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다문화 가정 자녀 12명을 포함한 천태초교 전교생 43명이 지난 4일 화순군 도암면 학교 운동장에서 ‘도암 도장리 발노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이 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이우르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화순=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생수 줄어 위기인 농촌학교

다문화 2세는 ‘든든한 버팀목’

전남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2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한국인 일부 사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수를 초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7만163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27만9890명)에 비해 3%(8258명) 감소한 것으로, 10년 전인 2000

년(34만1147명)보다 20.4%(6만9515명) 줄었다.

이처럼 전남의 학생 수가 10년새 5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은 농촌지역의 저출산 문제와 학생들의 도시 학교 전학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전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2898명으로, 지난 2007년(1500명)보다 93.

2%(1398명) 증가했다.

저출산 현상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2세들이 ‘감소일로’에 놓인 전남의 학교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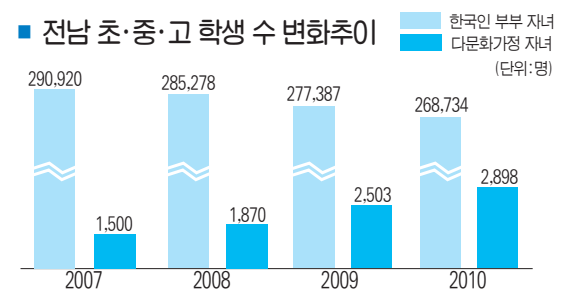
실제 화순 천태초등학교의 경우 10년 전인 지난 2000년 전교생이 76명에서 2001년 60명, 2002년 57명, 2004년 50명 등으로 학생 수가 급감했다.

천태초교 인근의 초등학교 수도

급격히 줄었다. 2000년과 2004년 용강분교와 봉하분교의 학생수가 3명밖에 남지 않아 천태초교로 통폐합되기도 했다.

반면, 천태초교에 입학하는 다문화가정 2세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04년 다문화 자녀가 처음 입학한 이후 매년 2~3명씩 늘어나면서 현재 1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3명, 5학년 3명, 6학년 2명 등 12명에 이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천태초교 학생들이 지난 4일 학교 2층 복도에 마련된 ‘넓은 세계, 가까워지는 이웃’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공간에는 해외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 각국의 전통의상과 악기 등이 전시돼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1. 시공전 / 단열베이스가시공

2. 단열베이스가시공 / 트라이슈머가시공

3. 트라이슈머가시공 / 방수시공

4. 옥상시공

특허방수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시트방수

2중단열방수, 절연방식시공, 내구성타월, 전천후시공성

여름철에는 전기료 절감 30~40%, 겨울철에는 난방비 절감 15~20%

옥상정원을 조성했을 때와 같은 단열효과를 냅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에너지를 절약하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는

태양열차단 방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절감 30~40%, 난방비 절감 15~20%

방수방수, 난방비 절감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가 될만큼 몸매가 모뎀을 뽐내는데 거기에서부터 몸매가 좋아지는 거라는 마법같은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감각이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섬세한 키는 1m50이 되며 색채가 끝까지 생생한 핏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몰이로 불려가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08 안향연

생노병사 불노정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 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 주요성분

- 특수 숙성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잡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 광주·전남·북 판매점 모집 ◆

상담문의 ☎ 010-3231-3665